

학원이 사회불안 요인대선 안돼

전국 대학총학생을 위한 오찬인사말

1980년 8월 19일

존경하는 총학장 여러분!

오늘 전국대학의 총학장 여러분이 모이신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학원소요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지도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총학장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소 국가발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인격을 함양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이야말로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교육을 맡고 계신 총학장 여러분의 사명과 책임도 그만큼 크고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교육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만, 총학장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교직자에 대하여 늘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경의를 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학원소요 사태가 확대되고 있을 때 본인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모든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가라앉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은 진리탐구라는 대학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당국의 인내심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원소요는 우리 사회의 현실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가공할 일은 일부 학생들이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을 망각하고 용공적인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는가 하면, 정치 불순세력에 편승하여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 음모에 가담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0·26사태」 이후 북괴의 남침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정세와 관련하여 실로 국가존망의 위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부득이 휴교령을 내려 대학의 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지난번 학원사태와 관련한 몇 가지 소회를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이 진리탐구의 수련장이어야 하며, 결코 질서파괴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학원내외의 소요사태는 일체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기회에 가두시위의 악습은 다소의 회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근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활동을 포함한 학원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교수나 학생들이 학술연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기능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면학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수들은 지식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주인이 될 다음 세대에게 국가관을 갖게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정신자세를 갖추고 지식을 배울 때, 그 지식이 장차 국가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산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교육이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보위가 단행한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해소」 조치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큰 전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우리 교육의 바탕에 누적되어 온 병폐를 도려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정직한 국민을 길러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능동적인 호응 없이는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풍토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80년째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한 뜻깊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발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일소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정화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운동에 교육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솔선수범하여 이 정화운동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화 작업을 과감히 추진해 온 국보위는 그 동안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교육계의 정화가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일부 사학의 가족중심 운영이라든지 대학의 기업화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회정화와 함께 많은 학원들이 스스로 자체정화를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제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원의 과거의 부조리에 대한 규명을 더 확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학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어떤 불안이나 동요없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육발전에 가일층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장 여러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학원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원소요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만다는 교훈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총학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가적 현실을 적시하시어 다시는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학원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총학장들께서 국가안보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새 시대·새 질서의 창조에 앞장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으신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결의를 가지고 정부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모든 대학이 빠른 시일내에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총학장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